

세조길 안내도 | Sejogil Guidemap



건강 증진 효과 (편도)

심박수 (bpm)	평균 96bpm (평상시 72~77)
걸음수 (걸음)	평균 5,000걸음
거리 (km)	3.2km
열량 (kcal)	평균 342kcal
경사도 (%)	경사율 4.2%
소요시간 (분)	1시간 (보통걸음)
피톤치드 (ppt)	3.38ppt

※ 피톤치드 :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 평가기준 최고점수 3.00ppt 초과

주변명소

화양구곡

명승 제110호로 지정된 화양구곡은 웅장한 기암괴석들에 둘러 싸여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시원한 계곡을 따라 우암 송시열과 연관있는 유적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일원
☎ 043-832-4347 (속리산국립공원 화양동분소)

쌍곡계곡

기암절벽과 노송이 어우러져 예로부터 괴산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계곡으로, 다채로운 풍경을 지닌 쌍곡계곡 주변에는 일곱 개의 병우리가 보물과 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칠보산, 기암괴석과 암릉으로 이루어진 곤자산에 둘러싸여 수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4길 5
☎ 043-832-5550 (속리산국립공원 쌍곡분소)

만수계곡

주위의 숲이 울창하고 깎아지른 듯한 바위가 아찔한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와 우거진 숲은 잠시 속세를 떠난 기분들을 느끼게 합니다.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안수리 일원
☎ 043-542-5267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솔향공원

속리사 소나무를 일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소나무의 역사와 공예품 등을 볼 수 있는 소나무홍보전시관이 있으며, 체험시설로 도깨비공원, 스카이버이코, 4D영상관, 식물원 등이 있습니다.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600
☎ 043-540-3774 (솔향공원 소나무전시관)

우당고택(선봉국 가옥)

국가민속문화재 제134호로, 우리나라 건축기법이 변화를 보이던 1919년에서 1921년 사이에 지어진 우당고택은 전통적인 한옥 구조에서 벗어나 세롭고 진취적인 한옥구조를 선택한 개화기의 건축물입니다. 가옥 주변에는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전통한옥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 충북 보은군 정안면 개간길 10-2
☎ 043-543-7177 (선봉국가유족 중가)


HELP LINE (국립공원 정보안내)

국립공원의 금품, 횡령 수수, 알선·청탁, 인사와 관련한 부당한 일행행사 등
 • 유희목적에 따라 주차료는 작성
 • 신고대상은 명확히 작성
 ※ 내부비리가 아닌 일반민원(재산, 권의 등)은 국립공원청단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조길의 아름다운 자연생태

속리산 깃대종 하늘다람쥐

속리산의 깃대종, 하늘다람쥐는 수줍음이 많은 야행성 동물이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늦은 오후 정에서 갓 귀여운 하늘다람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위에서 노는 담비의 재롱

바위에서 몸을 비비며 재롱을 부리고 노란 목도리 담비입니다. 호랑이와 표범이 사라진 숲의 최강 포식자 담비의 반전매력 그 귀여운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조길에 사는 물고기들

1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는 달천계곡과 저수지는 갈겨니, 버들치, 적은물고기, 흰줄배 물고기, 수변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입니다.




※QR코드를 찍고 상단의 '영상보기'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속리산과 세조임금


정이품송(正二品松)

천년기념물 제103호, 수령 약 700년, 높이 15m의 소나무로 세조임금이 속리산에 행차할 때 세조임금이 탄 가마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가지들 들어 올려 세조임금으로부터 정이품(정관급) 벼슬을 받았고 이후 '정이품송'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목욕소(沐浴沼)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목욕장으로 7년 중 물러서 목욕을 한 장소입니다. 목욕을 하던 세조에게 아사여래의 명을 받은 팔랑태자가 나타나 "피부병이 곧 완쾌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사라진 후 세조의 피부병이 나아졌다 하여 '목욕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복천암(福泉庵)

신라 성덕왕(720년)때 창건되었으며, 세조임금이 스승인 선미대사를 만나기 위한 사은순행(謝恩巡幸) 및 요양차 방문하여 널리 알려졌습니다. 법주사의 산내암자로 속리산의 중흥, 세조길의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



법주사(사적 제503호)는 2018년 6월 30일 우리나라에서는 13번째로,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 5교구 본사인 법주사는 90여 개가 넘는 일주문을 거느린 미륵 신앙의 요람이자 호서제일의 가람입니다. 신라 진흥왕(563년)에 의상조사가 삼국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처음 건립하였고, '불법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법주사의 이름 처럼 오랜 시간동안 이 곳에 머물러 있는 법주사에는 국내 유일의 5층 목탑인 팔상전(국보 제55호)과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석연지(국보 제64호), 쌍사자석등(국보 제5호)의 국보 3점을 비롯하여 보물 13점 등을 품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예약 안내

시 간 : 매일 10시, 14시(시간 변경 가능)
 만나는 장소 : 법주사 탐방지원센터 앞
 예 약 방 법 : 통합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 또는 전화(043-540-5827-8)
 ※ 기상악화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봄

따뜻한 햇살과 보드라운 연둣빛 새싹으로 물든 세조길에서 싱그러움 봄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

녹음이 짙어진 세조길을 걷는다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여름의 무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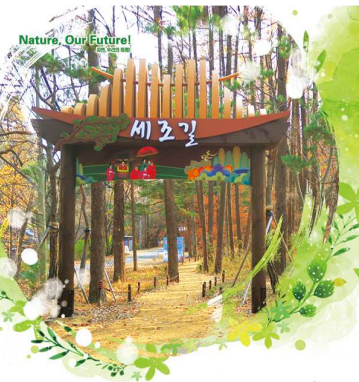
파란 하늘과 알록달록한 단풍이 만나는 세조길은 녹음이 감춰지 있던 속리산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겨울

새하얀 눈으로 덮인 세조길의 반짝이는 눈꽃들은 푸른 소나무와 어우러져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길 **세조길**

국립속리산공원사무소
 국립공원청 SONGNIHAN NATIONAL PARK OFFICE

세조길

조선 7대 임금인 세조가 속리산을 요양차 방문했을 때 복천암까지 오고간 순행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법주사에서 복천암까지 편도 3.2km로 2016년 9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저수지와 계곡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져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고 특히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탐방로 구간이 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이 바람에 향기를 더하고 사계절 특색이 뚜렷한 물가에는 산새들이 깃들어서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조길은 소중한 자연을 보존하며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생명의 길로 속리산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